

특별기고

한자 교육의 추진과 정자 표기를 위한 교학의 노력 ⑥

5. 전국 백일장(白日場)에서의 한자 오기



박동규
영북노인대학 학장

전국 규모의 한시(漢詩) 백일장에 한자의 오기다. 모 한시 백일장에 참가한 바 있는데 장원(壯元)으로 발표된 한시 가운데 한자의 약자를 포함해서 무려 8자의 자형(字形)이 바르지 않고, 접·획의 오류가 지적(指摘)이 되는데 장원(壯元)으로 선정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여 담당자에게 항의를 했더니, 다음 해는 심사위원장이 심사평(審査評)으로 제일성(第一聲)이 우선적으로 선정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여 담당자에게 항의를 했더니, 다음 해는 심사위원장이 심사평(審査評)으로 제일성(第一聲)이 우선적으로 선정된다고 공표했다.

여해 입상자를 발표했는데 장원 한시 가운데 사문(斯文)을 사문(斯問)으로 표기한 것을 장원으로 선정 발표해 상금 1백만 원의 부상을 시상하였으나 실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한시평가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한시평가는 우선적으로 한자의 정확한 필사(筆寫)를 평가기준에 포함시켜 한자의 정확한 표기가 아니면 우선적으로 예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근간 백일장 심사(審査) 과정에서 한시의 외형적인 한자 표기에 대하여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 안타깝기가 이를 데 없다.

한글 백일장에서는 맞춤법· 띄어쓰기·원고지의 사용법 등을 평가 항목에 포함하고 있지 않잖나. 백일장에서 심사과정을 보면 짧은 시간에 대부분 고려의 심사위원이 많은

작품을 심사하기란 무리하다고 하겠다.

경전(經典)과 사기(史記)의 고전(古典)·고사(故事)를 인용해서 단어·성어를 한시에서 활용을 선호(選好)해서 선정하는 경향을 백일장마다 엿볼 수 있고, 심사위원 주변 응시생이 상당수가 타작(他作)·위작(偽作)이거나 정실에 의해 입상하여 다른 응시자들로부터 빈축(빈정)을 사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된다.

대부분의 백일장 주최 측에서 압문자(押韻字)를 미리 제시(提示)했기 때문에 본인의 창작품(創作品)이 적고 타작(他作)이 많아 엄선(嚴選)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후진을 위해서는 갑·을과(甲乙科) 능력별로 실시하며, 전국단위 입상자는 갑과(甲科)로 압문을 미리 발표하지 말고 당일 고사장에서 발표해서 실시하게 하고, 미 입상자·초보자는 을과(乙科)로 압문자(押韻字)를 미리 제시해서 실시하게 되면 한시공부를 승계(承繼)할 후진이 다소 늘어나게 될 것임으로 전망되며, 원로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시가 발전되리라 확신한다.

그동안 한시백일장에 수차 참석해서 보내온 한시집(漢詩集)에서 오류를 몇 수십 개씩 발견해서 후일에 정오표(正誤表)를 작성해서 보내온 적이 수차 있었다.

편집(編輯)과 인쇄과정에서 몇 차례 검토해서 하자(瑕疵)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간행(刊行)토록 해야 한다. 오탈자(誤脫字)가 많으면 간행물(刊行物)로써 품위(品位)를 잃고 저락(低落)하여 독자와 거리를 두게 된다.

발간 후 수정(修訂)은 시간과 노력 검토 경비(校閱)보다 더 많이 소요된다고 하는 사실과 작자에게는 결례(缺禮)라는 것을 간과(看過)해서 안된다.

특별기고

생태도시를 위한 조건 “인간과 자연과의 만남에 대한 성찰과, 생태학적 사유의 가치”



공명수 교수
대전대학교 영문학과

우리가 저마다 함께 살면서 호흡하고 있는 자연은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 형성에 각별한 의미로 작용하고 있다. 어렸을 때 기억 속에 남아있는 뒷동산의 장엄한 풍경이든, 자신의 이루지 못한 욕망 속에 그저 생존을 위해 등질 수밖에 없었던 결핍된 고향이든, 배반의 아픈 기억이 묻어 있는 사막하고 황량한 황야든, 살충제의 남용으로 생명의 소리가 사라진 침묵의 들판이든, 자연은 우리의 자아 의식을 구성하는데 핵심적 요소임을 부인할 수 없다.

사실, 우리 모두의 무의식 속에는 장엄한 대자연에 대한 국민적 자부심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어느 누구든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의 고향의 산천을 떠올리면 야성적인 즐거움과 귀속본능이 그 어디에서든 순간적으로 솟구쳐 오르게 되어 자연이 우리의 일체의식의 뿌리임에 틀림없다. 이는 자연이 우리사회에서 국민적 정체성의 근간이면서도 동시에 공동체적 귀속감의 근원이 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인간과 자연과의 만남에 대한 성찰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아형성과 문화적 에토스의 본질을 되새겨보는 필수적인 조건이자 의미 있는 작업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자연이 단순히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당대의 가치체계가 투영된 이념이라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자연을 그저 우리의 생존을 위한 물리적 배경으로 도외시 해 온 근대적 인간중심주의 시각에서 벗어나 자연을 개개의 자의의식과 집단적 상상력의 원천이 숨쉬는 실존적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환경주의자들이나 환경문화학자들이 인간의 입장에서 자연을 바라보았기에 그것 속에 내포된 특별한 의미소를 간과하였다. 우리는 자연과 문화를 대립적인 것으로 설정하고 자연을 정복과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온 인간중심주의적 시각을 버리고 자연의 입장에서 자연이 우리의 필수적인 가치체계를 이룬다는

이야 한다. 자연을 삶의 본원적 장소, 실존의 근원적 터전이라는 시각에 바탕을 두고, 생태주의나 생태문화학자들의 주장처럼, 우리는 자연의 관점에서 자연과 인간을 바라보는 내재적 자세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문화적 차이가 깊어 매개되고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지리적 공간은 사회적, 문화적 에토스와 밀접한 상관성을 맺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환경이 사회적이고 심리적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파악될 수 있기에 자연은 인간의 삶이 숨쉬고 있는 복합적인 관계망의 장소로 새롭게 자리매김되고 있는 것이다. 자연이 단순히 거기에 존재하는 지리적 풍경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미감이 뒤얽히는 언술의 장임을 부인할 수 없다. 자연이 우리에게 근원적인 귀속감을 제공하고 우리의 일상 속에 일어나는 삶을 포용하는 생명으로서 생태적 환경(milieu)인 것이다. 우리는 자연이 우리의 공동체적 가치와 심성형성의 중요한 변수임을 유념하면서 자연이 거대한 유기체임을 상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연의 범주 속에는 원시적 자연과 도시적 문화가 결구되어 분포되어 있다. 시골의 한적한 풍경과 대도시의 정원의 정돈된 풍경도 우리에게 모두 자연인 것이다. 자연은 우리가 어느 공간에 살고 있든 상호 배제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침투하며 유기적 전체를 이루는 상호 보완적인 공간으로서의 실존적 장소이다. 사회생태학자 머리 북친(Murray Bookchin)의 주장처럼, 환경의 범주는 생명의 본성에 충실하고 역동적 삶을 포용하는 공간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 공간은 그것이 어느 지리적 공간에 위치해 있든 자연의 범주에 속한다. 이는 인위적인 문화와 환경의 존재에 저마다 기여할 때, 그 공간은 단순한 의미에서의 물리적 환경에서 벗어나 자연의 지리적 장소의 범주 속에 포함될 수 있다. 우리가 갈색 경관을 이루고 있는 도시환경, 다시 말해 오늘날 절대다수의 현대인들이 살아내고 있는 도시의 자연환경도 자연의 신비를 간직한 구체적인 생태적 삶의 예시를 얻을 수 있는 실존적 장소로서의 역할

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문화비평가인 콜로드니(Annette Kolodny)는 자연을 서로 다른 관습과 언어가 상호 침투하는 ‘문화 접촉의 장소’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자연이 다양성과 차이성이 상호 공존하고 생동하는 유동적인 공간으로 재구성된다는 의미이다. 특히, 미국의 개척지의 신화적 역할을 해부한 문화비평가 스미스(Henry Nash Smith)는 원시적 자연과 도시 문명 사이의 조화가 강조된 ‘중간 풍경’(middle landscape) 속의 목가적 삶에 주목하고 있다. 스미스의 이 개념은 인식 속에는 정원과 기계의 조화로 온 풍경이 미국적 유토피아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도시와 자연의 경계선상에 위치한 우리의 공동체에 내포된 천혜의 지리적 공간에 대한 유토피아적 공간의 가능성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자연과 사람의 만남을 선전하는 거창한 구호 속의 그 어디에도 생태학적 예지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우리에게 인간적 입장이 아닌 자연의 입장에서 자연의 섬세한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의 가치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다시 환원하는 창조적 지혜가 없었다. 우리가 자연을 소유의 대상으로 정복과 파괴의 대상으로 여기는 한 자연은 우리에게 무관심과 침묵으로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자연의 진정한 친구가 될 때, 자연은 우리에게 환상할 수 없을 정도의 중요한 가치를 우리에게 선물할 것이다. 자연이 자본이 되는 논리가 여기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자연과의 접촉을 갖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이제, 겨우 자연과의 친교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자연에게는, 인간의 성장과정이 그렇듯이, 탄생, 성장, 성숙, 사멸의 과정을 겪으며 변화해 간다. 가령 흔히 볼 수 있는 울창한 숲도 처음에는 자그마한 모종으로 시작하여 시간이 흐르면서 보다 큰 나무로, 이윽고 선구식물들이 자라는 잡목림으로 변화되고, 더 시간이 흐르면서 큰 나무들이 자라는 숲으로 발달되어 간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이 숨쉬고 있는 자연 속으로 우리 스스로 먼저 무릎의 자세에서 귀속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교육에세이 70

교육성공 방정식 Success = Q+I+S+M-P²



이호연
영평초등학교 교장

실리콘밸리에서 경영에 성공한 기업들의 사례를 종합해 수학 공식처럼 만든 성공 방정식은

$$S_{\text{Success}} = Q_{\text{Quality}} + I_{\text{Innovation}} + S_{\text{Smart}} + M_{\text{Money}} - P_{\text{Pain}}^2$$

로 요약되는데, 교육계에서도 교육이론으로 다분히 경영학의 방법과 기법을 도입하는 맥락에서 실리콘밸리 성공 방정식을 도입하여 나름대로의 교육 성공 방정식을 도출해 본다.

Q는 품질(Quality)을 말하며, 품질관리를 못하면 곧바로 사업의 실패로 이어진다.

실리콘밸리에서는 기술 개발에

성공한 제품이 마무리 단계에서 상품화에 실패하거나, 당초 계획된 제품 기능이 생산 이후에 발휘되지 못해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교육에서도 양질의 교육과정(Q)을 구안해야 한다. 教育課程(curriculum)으로서가 아니라 다양한 잠재적 교육과정을 망라한 教育過程(Process Of Education)이다. 흥미와 만족을 충족시키는 교육과정이라면 충분히 양질의 교육과정(Q)이라고 할 수 있다.

I는 혁신(Innovation)이다. 많은 기업들이 혁신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리콘밸리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백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즉 제품이 다른 경쟁사에 비해 어떤 기능이 우수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객이 그동안 기술적·지식적 한계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즉 고객과의 관계에서 혁신을 파악한다.

교육에서도 혁신(I)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성적처리하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언급하거나, 서술하고 있다. 그래서 학생의 단점에 대해서는 아예 소경이 되어 있는 실정이다. 학생의 전인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학생의 장점도 알아야 하지만 학생의 단점도 공개적으로 파악하고 알아야 한다. 이러한 혁신적인 단안이 실현되었을 때 진정한 교육의 혁신(I)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S는 경영진의 우수성(Smarts)이다. 우수한 경영진은 고객과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의사소통(Communication)을 하고, 제품을 고객에게 빠르고 쉽게 전달(Delivery)하는데 집중한다.

교육에 있어서 우수성은 담임과 지도교사 및 교육의 지원행정 시스템에 관여하고 있는 많은 인적 자원을 총칭할 수 있다. 교육의 질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렇듯 교육을 담당한 담임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부단한 자기연찬과 노력으로 教育過程(Process Of Education)을 운영해야 한다. 이러한 선결과제가 갖추어졌을 때 우수성(S)은 확보된

다 할 수 있다.

M은 필요한 자금(Money)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교육에서의 자금(M)은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예산의 충분한 뒷받침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엄선된 教育過程(Process Of Education)이 구안되면 이의 실천을 위한 예산(M)이 수반되어야 한다.

P²는 고통(Pain)의 제곱(P²ain)을 의미한다. 고객이 신제품을 계속 사게 하려면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점, 즉 고통을 얼마나 많이 덜어주는지가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뜻이다.

교육에 있어서 고객은 학생이다. 제1무리 좋은 教育過程(Process Of Education)이라고 해도 학생들이 고통을 느낀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좋은 教育過程(Process Of Education)(Q)이라고 할 수 없다.

재미있고, 즐겁고 만족스러운 教育過程(Process Of Education)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학생에게 고통을 덜어 주는 성공적인 신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면을 부각시키고 언급하거나, 서술하고 있다. 그래서 학생의 단점에 대해서는 아예 소경이 되어 있는 실정이다. 학생의 전인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학생의 장점도 알아야 하지만 학생의 단점도 공개적으로 파악하고 알아야 한다. 이러한 혁신적인 단안이 실현되었을 때 진정한 교육의 혁신(I)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S는 경영진의 우수성(Smarts)이다. 우수한 경영진은 고객과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의사소통(Communication)을 하고, 제품을 고객에게 빠르고 쉽게 전달(Delivery)하는데 집중한다.

교육에 있어서 우수성은 담임과 지도교사 및 교육의 지원행정 시스템에 관여하고 있는 많은 인적 자원을 총칭할 수 있다. 교육의 질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렇듯 교육을 담당한 담임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부단한 자기연찬과 노력으로 教育過程(Process Of Education)을 운영해야 한다. 이러한 선결과제가 갖추어졌을 때 우수성(S)은 확보된

진우교육시스템

7단계 반복 완전학습(RPS) 시스템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습 개념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시키고 확장시켜 주는 것이다”



1 단계 학원수업
교재를 통한 학원에서 직접 대면수업

2 단계 통합복습
동형상 강의 및 미션으로 확인 학습

3 단계 확인수업
익일 수업전 5분내 복습시도를 통한 확인수업

4 단계 과제물 학습
주간 과제물을 통한 반복 확인 학습

5 단계 주간 평가
주간 단위 평가를 통한 심화 확인 학습

6 단계 반복학습
월간평가를 통한 반복 확인 학습

7 단계 시험대비학습
중간/기말고사 대비 학원에서 반복 확인수업

-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상 수상
- ▶경기도 교육감상 수상
- ▶스승의날 기념 포천시장상 수상
- ▶한국청소년문화진흥협회 우수지도자상 수상
-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상 2회 수상
- ▶경기도 학원연합회 회장상 3회 수상
- ▶포천 상공회소 회장상 수상
- ▶경기도 학원연합회 공로패 4회 수상

진우학원 031-535-6161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포천초등학교 정문앞